임동식 컬렉션

연구조사 가이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글 | 김종길(한국현대미술, 미술평론가)
컬렉션 분류·기술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발행 | 최은주(서울시립미술관장)
연구총괄 | 정소라(학예연구부장), 정유진(미술아카이브과장)
연구기획 | 조은성(기록연구사), 김다영, 김현지(기록연구원)
협력기획 | 김은주, 김경보(한국문헌정보기술㈜)
버전 | 버전 3.0
발행일 | 2025.10.31
발행처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목차

1. 사전 정보 1

2. 이해를 위한 배경정보 3

3. 관련 키워드 6

4. 작가의 저작 목록 6

5. 기관에서 소장 중인 작품 정보 6

6. 해당 가이드와 관련하여 추천하는 연구 동향, 참고자료 8

7. 연보 16

8. 컬렉션 정보 21

임동식 컬렉션 연구조사 가이드

글 | 김종길(한국현대미술, 미술평론가)
작성일 | 2025.10.31

1. 사전 정보

임동식(林東植, Rim Dong Sik, b. 1945–)의 예술 여정은 자연을 그저 미술의 대상이 아니라 '함없(無爲)'으로 피고 지는 존재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동아시아 감각에서 출발한다. 그는 충남 연기에서 태어나 풀포기의 떨림과 개구리의 합창, 바람과 별빛 같은 자연의 미세한 징후 속에서 세계를 터득했다. 그의 언어로 하면 "풀포기의 떨림에서부터 여치의 울음, 개구리의 합창…"(「야투 창립선언문」, 1981)에서 이미 자연의 시간과 감응을 예술로 전이시키는 감성이 형성된 것이다.

1960 년대 홍익대 서양화과에서 그는 조형적 규율보다 자연에 가까운 감각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1970 년대 후반 '한국미술청년작가회'에 참여하며 제도 밖 미술의 길을 실험한다. 이 흐름은 1980 년《금강현대미술제》로 이어지는데,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단계 걸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장에서 여과되지 않은 감각을 드러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시는 자연을 앞이 아니라 '뒤·옆으로 사유하는' 전환적 사건이었다.

1981 년 그는 야투(野投)를 결성하며 자연미술의 강령—자연과의 신선한 접촉, 생명력의 예찬, 사계절연구—을 제시했다. 야투는 "자연은 스스로의 이유로 꽃을 피운다"라는 동아시아 생명론을 현장 행위로 전환한 실천이었다. 그에게 자연은 표현의 대상이 아니라, '던지는(投)' 자리, 즉 인간의 몸과 생각이 자연의 리듬에 귀의하는 수행 공간이었다. 자연 속 퍼포먼스가 결과물보다 '감응'을 중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80 년대 독일 유학은 자연미술을 국제 환경미술의 문맥에서 재인식하게 했고, 귀국 후 정착한 원골마을은 자연과 사유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생활 기반이 되었다. 그는 띳집을 짓고 홀로 살며 "자연처럼 강하고 선하며 깨끗한 의식"에 도달하려는 수행을 지속했다. 1990 년대 이후 회화로 전환한 작업들은 초기 자연행위의 재현이 아니라 기억과 사유가 쌓인 시간의 층위 그 자체였다. 그의 풍경화는 농부의 노동과 닮아 있다. "붓이 농기구라면 물감은 씨알이고 행위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그는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치의 '사유'를 그리는 행위에 임했다.

1990 년대 중반 예술과 마을 프로젝트는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관점을 다시 확인하며(「예술과 마을I」 선언문, 1993), 자연예술을 공동체의 생활 세계로 확장했다. 국제자연미술제 기획은 야투의 미학을 세계적 담론으로 연결한 사건이다.

2000 년대 이후 그는 퍼포먼스·기록·회화를 순환시키는 독자적 구조를 발전시켰으며, 아르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 전시를 거쳐 2020 년 서울시립미술관《일어나 올라가 임동식》에서 5 천여 점의 아카이브가 공개되었다. 여기서 그는 "자연의 사유를 듣는 자"로 자리매김하며 자연의 표면과 심연(形·影),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미학을 증명했다.

임동식의 자연미술은 요컨대 "생생지리(生生之理)—자연이 낳고 자라며 스스로 드러내는 리듬을 예술가의 몸과 삶을 통해 드러내는 미학"이며, 그의 예술은 자연과 인간이 일여(一如)의 상태에서 교감하는 세계이다.

dtc 갤러리,『임동식-80 년대 함부르크 시절 드로잉부터 2018 오늘까지』, 2018

2018 년 7 월 13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dtc 갤러리에서 진행된《임동식-80 년대 함부르크 시절 드로잉부터 2018 오늘까지》의 도록이다. 1980 년대 독일 함부르크 유학 시절의 드로잉부터 2018 년까지의 대표작을 볼 수 있다. 특히 오브제 드로잉, 오브제 콜라주 등 200 여 점의 드로잉은 임동식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드로잉 에너지』, 2006

2006 년 11 월 3 일부터 12 월 14 일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진행된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드로잉 에너지》의 전시 도록이다. 74–85 쪽에 임동식의 작품 〈드로잉 1985〉, 그리고 이와 관련된 김형미의 작가론을 비롯해 작품 설명이 있고, 175 쪽에 임동식의 약력이 실려 있다. "드로잉은 출발이고, 과정이고, 문제제기를 뜻한다."는 기획 취지와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임동식이 추구해 온 자연미술에서 '드로잉'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원골마을, 『예술과 마을』, 2000

2000 년 8 월 18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 1 구 원골마을에서 진행된 《예술과 마을》의 전시 도록이다. 전시에는 총 73 인의 농업 종사 주민, 60 인의 국내 초대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도록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2000 예술과 마을 도록(작가와 명제), 제 4 부-원골 마을 관련 자료, 제 5 부(참고자료) -1993 예술과 원골, 제 6 부-2000 예술과 마을을 도와주신 분들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4–253 쪽에 임동식의 글 「예즉농(藝卽農) 농즉예(農卽藝)」와 466–467 쪽에 임동식의 작품 〈흙으로 송편을 빚어 굽다〉가 수록되어 있다. '예즉농 농즉예'는 임동식의 자연미술로 들어가는 가장 진실한 문이다. 임동식의 글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자연미술의 고갱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생산자 미상, 『Kunstproben』, 1987

1987 년 11 월 5 일부터 1988 년 1 월 15 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바티그(BATIG) 갤러리에서 진행된 전시 《Kunstproben》 도록이다. 이 전시에는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재학 시절 지도 교수인 클라우스 뵈믈러(Claus Böhmler)와 임동식을 포함한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제작된 도록의 표지에는 당시 참여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사용되었으나, 촬영 당일에 함께하지 못한 임동식을 대신하여, 거북이를 등에 업은 퍼포먼스를 하는 임동식의 사진이 앞줄에 배치되어 있다. 당시 임동식이 출품한 작업은 각을 이루어 만든 좌대 위에 여러 가지 색의 전깃줄과 스피커를 사용하여 만든 부처 형상의 오브제를 올려두고 좌대를 둘러싼 천정에서부터 내려오는 흰 천의 중앙을 잘라 앞부분만 보이게 디스플레이한 것이다. 스피커로 만든 부처의 귀에는 임동식이 직접 녹음한 〈음의 윤회(Tonkreis)〉 사운드 작업이 설치되었다. 이 도록은 유학 시절에 무르익은 '교감'하고, '감응'하며, '감흥'을 틔우려는 세계관의 큰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무엇보다 '수행성'의 태도에서 불교가 품고 있는 화엄우주론이 어떻게 임동식의 세계와 잇닿아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임동식, 『임동식-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2005

2005 년 10 월 28 일부터 11 월 24 일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진행된 《임동식-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의 도록이다. 책의 표지는 〈어느 少年(소년)의 꿈을 위한 작업〉이고, 뒤표지는〈거북과 고목〉으로 디자인되었다. 도록에는 홍명섭의 평론 「동방소년 사유상-임 선배를 떠올리며」가 실려 있다. 도록의 구성은 1975 년부터 2005 년까지의 작업이 역순으로 전개된다. 임동식과 《금강현대미술제》, 《야투-야외현장미술 연구회》를 함께 기획했던 홍명섭의 글은 회고담에 기대서 '예술하는 인간학'으로서의 '임동식'을 면밀히 살핀다. 가장 가깝고, 또 먼 거리에서 그린 '임동식 초상'이다.

갤러리 세솜, 『임동식-자연예술가와 화가』, 2014

2014 년 2 월 26 일부터 3 월 27 일까지 갤러리 세솜에서 진행된 《임동식-자연예술가와 화가》의 도록이다. 이 도록은 김종길의 평론 「화농畵農, 미의 최소화를 위한 자기 수행-임동식의 자연미술과 회화적 상징」, 작품 사진, 작가 약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 년에 그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반대하며 홀로 자연미술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다. 그 뒤로 그는 10 년 동안 '그림농사(畵農)'에 매진했다.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도록이다.

임동식, 『1964 보릿고개로부터!...』, 2015

2015 년 4 월 15 일부터 4 월 28 일까지 스페이스몸미술관에서 진행된 홍익대학교 회화과 64 학번 동기생들의 전시 《1964 보릿고개로부터!...》 도록이다. 238 쪽에 임동식의 작품 〈친구가 권유한 검바위 고목-동서남북 4 방향〉, 〈친구가 권유한 방흥리 할아버지 고목 나무 여덟 방향〉이 실려 있다. 책을 책임 편집한 임동식은 이들의 작품 경향을 비원파 사실주의, 청관파 수채화, 구상, 추상, 백색주의, 극사실 회화, 설치적 회화, 구상과 추상의 융합, 표현주의, 색채중심 밝은 그림, 신앙적 회화, 세계여행과 그림, 일상적 일로서 그림, 민중미술, 현장주의 풍경, 센티멘탈-로맨틱 리얼리즘, 야투-자연미술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윤희의 평론 「예술과 인생」, 김종길의 평론 「청춘예찬, 미의 수행자들」이 실려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2020

2020 년 8 월 19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도록이다. 이 전시는 1970 년대 초기작부터 40 여 년간의 작업을 총망라한 아카이브 전시였다. 전시 제목은 1981 년 여름 공주 금강에서 열린 야외현장미술 '야투(野投)' 첫 모임에서 선보인 두 퍼포먼스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 이후 줄곧 '임동식'만의 길을 걸어온 작가의 미술 세계를 만다라처럼 펼쳐냈다. 전시는 크게 '몸짓', '몰입', '마을', '시상' 4 개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했다. 이 도록에는 전시를 기획한 김호정, 송고운 큐레이터의 「임동식의 말: 사유의 기록」을 비롯해, 김종길의 평론 「미의 한 긋, 오롯한 얼나-임동식이 궁리한 생생지리 미학」, 백승한의 평론 「자연문화와 함께 하기」가 실려 있다. 임동식이 펼쳐온 자연미술의 세계 전반을 아카이브, 작품, 평론으로 집대성한 '아카이브북' 성격의 도록이다.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자료라 생각한다.

2. 이해를 위한 배경정보

임동식의 삶

임동식은 1945 년 충청남도 연기에서 태어나 농경지대의 자연을 삶의 조건으로 체험하며 성장했다. 들판과 강, 사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겪는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에게 자연을 조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환경'으로 인식하게 했고, 이는 훗날 자연예술가로 나아가는 원형적 감수성을 형성했다. 1960 년대 후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한 그는 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제도 미술이 요구하는 조형적 규율이 자신의 감각과 상충함을 자각했다.

1970 년대 후반 그는 젊은 작가들의 자율적 연대를 지향하며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창립에 참여했다. 이는 한국 실험미술이 제도와 분리되어 독자적 방향을 모색하던 중요한 순간이었고, 임동식에게도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 흐름은 1980 년 공주 금강 일대에서 개최된 금강현대미술제의 기획과 참여로 구체화되었다. 강과 숲, 하천변이라는 비제도적 공간에서 진행된 이 전시는 그가 자연을 작업의 장소이자 사유의 장으로 바라보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 경험은 곧 1981 년 야투(野投, 야외현장미술연구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임동식은 자연 속에서의 비개입적 태도, 즉 사람의 조형 의지를 최소화하고 자연의 시간성과 조건 속에 몸을 위치시키는 방식을 통해 야투의 미학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나아가 자연의 변화 주기에 따라 활동하는 사계절연구회를 조직하며, 자연과 예술의 순환 리듬을 장기적으로 관찰·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1980 년대 그는 독일 유학을 통해 유럽의 실험미술, 퍼포먼스, 환경예술 담론을 직접 접했다. 독일에서의 시간은 자연예술이 동양적 직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담론 속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기였다. 귀국 후 그는 공주 원골마을에 정착하며 자연과 공동체의 삶을 결합한 새로운 예술 실천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그는 마을 주민과 일상을 공유하는 '예술과 마을 프로젝트'를 전개해 자연·삶·예술의 통합적 구조를 확립했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임동식은 야투 활동을 국제적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국제자연미술제(International Nature Art Festival) 기획과 운영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연예술을 지역 기반의 실험을 넘어 세계적 네트워크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했다.

그의 작업은 주요 미술관 전시를 통해 제도 미술의 장에서도 재조명되었다. 아르코미술관(ARKO)에서는 퍼포먼스 기록과 회화가 상호 구조를 이루는 방식을 소개하며 자연예술의 개념적 층위를 보여주었고,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지역성과 자연성을 연결하는 작가의 미학적 전개를 조망하는 기획전이 이어졌다. 특히 2020 년 서울시립미술관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은 그의 반세기 작업을 아카이브 중심으로 재구성하며, 자연예술의 존재론적·역사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정리한 대표적 회고전이었다.

2000 년대 이후 임동식은 퍼포먼스·사진·회화·텍스트를 아우르며 자연예술을 일상의 실천으로 확장해 왔다. 오늘의 그는 여전히 공주 일대에서 자연과 더불어 작업하며, 자연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탐구하는 독자적 궤적을 이어가고 있다.

《제 1 회 금강현대미술제》

공주 금강 변에서 펼친 대규모 야외현장미술 전시였다. 1980 년 11 월 16 일부터 22 일까지 6 박 7 일 동안 지역에 연고를 둔 2030 작가들이 주축이었다. 이듬해엔 대전문화원에서 1981 년 4 월 18 일부터 23 일까지 《입체전》을 열었고, 4 월 24 일부터 30 일까지 《평면전》을 열었다. 그는 '한국청년미술작가회' 활동을 토대로 공주·대전과 충청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대거 발굴하고 참여시켰다. 홍명섭, 유근영 등과 함께 기획한 이 전시는 야외현장미술을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중력, 시간, 불과 온도, 물의 흐름, 빛 등을 작품에 사용했으며, 평면과 이벤트 등 토탈아트 성향의 작품들도 제시되었다. 1981 년 두 번째 《금강현대미술제 실내전》을 마치고, 그해 6 월에 공주문화원에서 공주 연고의 임동식, 지석철, 유동조, 고승현, 허진권이 '오오五悟(다섯이 진리를 깨닫는다)'를 주제로 전시를 열기도 하였다.

야투-자연미술(野投-自然美術)

'야투–자연미술'은 1970 년대 한국 실험미술이 실내 제도공간을 벗어나 자연을 직접 실험의 장으로 삼으려는 흐름 속에서 태어났다. 그중 1975 년 안면도 꽃지해변 작업은 자연을 미술의 '대상'이 아니라, '현존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전환점이 되었다. 임동식은 꽃지 작업을 회고하며, 당시의 시도는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 몸을 두어 그 감응을 직접 느껴보려 했던 실험"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그가 정립하게 되는 자연미술 철학—자연에 개입하기보다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는 태도—의 선행적 감각이었다.

이 흐름은 광릉 숲 작업(1976)으로 이어지며 자연을 조형의 재료가 아닌 '사유가 발생하는 현장'으로 해석하게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1980 년 금강현대미술제에서 더욱 뚜렷해졌으며, 임동식은 이 전시 서문에서 자연미술의 원리를 "자연처럼 강하고 선하며 깨끗한 의식"을 향한 수행으로 규정했다.

1981 년 그는 야투(野投)를 창립하고 자연 속에서의 직접적 관찰·감응·비개입·사계절 연구를 중심으로 한 자연미술 개념을 체계화했다. 임동식은 이때 "자연의 현장에서 여과되지 않은 감각을 드러낸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자연미술을 인위적 조형에서 벗어난 수행적 예술로 규정했다.

1988 년《야투 실내에서의 자연미술전》,《야투 세 곳의 섬으로부터...》은 야외작업을 실내 설치 언어로 전환한 첫 사례였고, 자연미술이 기록·문서·아카이브를 갖춘 독립된 예술체계임을 선명히 했다. 이어 1987 년 스위스『Kunstnachrichten』특집, 1989 년 독일《Yatoo Natunstler Gruppe aus Korea》전시는 '야투' 개념을 유럽권에 전파하며 '자연미술(Nature Art)'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1 년《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그리고 1995·1998 년 후속 국제자연미술제는 자연미술을 국제 플랫폼으로 확장시켰다. 임동식은 이 과정에서 자연행위·기록·회화를 순환시키는 자신의 작업구조를 발전시키며 자연미술을 국제 담론 속에서 재위치시켰다.

이 역사적 전개는 2020 년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에 기증된 임동식 아카이브 5,000 여 점—야투 창립문서, 금강현대미술제 자료, 스위스·독일 전시 자료, 자연행위 사진 및 노트—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 자료들은 자연·몸·기록·회화가 긴장과 순환 속에서 구성되는 야투–자연미술의 구조가 단일한 양식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사유적인 예술체계였음을 드러낸다.

야투-야외현장미술연구회

1981 년 8 월 공주시와 금강 유역을 근거로 활동하던 젊은 미술가들인 고승현·유동조·임동식·지석철·허진권 등이 중심이 되어 '야외현장미술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별칭인 '야투(野投)'는 임동식이 발의한 것으로 '작가의 생각을 자연 속에 표현한다'는 뜻이다. 1983 년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야투-야외현장미술연구회'는 1985 년에 '야투-자연미술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5 년에는 바깥미술회와 함께 '한국자연미술가협회'를 창립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로 사용 중이다.

야투-사계절연구회

1981 년 창립 이래 '사계절연구회'라는 내부 연구 모임을 통해 '자연미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시켜 '자연미술'의 미학적 연구와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1991 년 공주에서 개최한《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은 국제 자연미술 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20 여 차례의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 미술계에 그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1981 년부터 1991 년까지 38 회에 걸쳐 진행된 사계절연구회 도록과 아카이브는 '자연미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왜 그들이 '야투-야외현장미술연구회'를 '야투-자연미술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예즉농(藝卽農) 농즉예(農卽藝)

1981 년부터 10 년간의 독일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임동식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운다. 원골마을에 정착하고 여러 해가 지나면서 임동식은 자연과 교감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아간다. 농경주의에 바탕을 둔 시골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서 '공동체미술'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그들과 함께《예술과 마을》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예즉농 농즉예'라는 개념이었다. 그것은 '예술이 곧 농사요, 농사가 곧 예술'이라는 뜻이다.

예술과 마을

1993 년 봄에 원골로 입주했을 때 그는 "감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터에 맨손으로 손수 지은 작업장 25 평. 터 잡기부터 시작해 건물골조-지붕공사, 벽면처리, 내장공사, 배수로-화단공사, 뱀이나 쥐에 대한 신경 쓰기-여름에 모기, 파리 대책, 겨울의 온돌방에 매일 군불 때기, 즉 인간생존의 1 차 문제를 공부"한다고 생활 일기를 남겼다. 그는 「농경문화와 예술문화의 합생 '마을과 예술' 새로운 예술이념」이라는 글에 그런 그의 삶과 예술의 이야기를 풀어 놓고 있다. 그가 작성한《예술과 마을I》의 선언문에는 이런 글이 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왔으며, 자연 가운데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예로부터의 사상을 재확인하며, 예술에 있어서 농경문화와 자연미술을 합생시키려는 노력의 큰 서장을 연다. 즉,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며, 농사가 예술이며 예술이 곧 농사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수천, 수백 년 이래 산과 물 등 풍수조화에 적응하여 터를 일구어 이루어진 '농촌마을'을 살아있는 자연예술로 확인하며 그 인간적 분위기를 예찬한다. 또한 농민들에 의해 전래되어 온 풍습 등 문화적 사항, 즉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들의 숨은 예술적 소양에 대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사라져 가는 마을문화를 복원시키며, 주민 스스로가 자연미술 출품작가로 나서 그들 자신이 이미 자연미술가였음을 확인하는 대장을 연다."

3. 관련 키워드

한국미술청년작가회, 꽃지해변, 자연미술, 자연미술가, 교감, 감응, 감흥, 야투(野投, YATOO), 금강 백사장, 금강현대미술제, 야투-야외현장미술연구회, 야투-자연미술연구회, 사계절연구회, 원골마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예즉농 농즉예, 예술과 마을, 공주, 한국자연미술가협회, 농경주의, 농경문화, 마을문화

4. 작가의 저작 목록

단행본

저자	연도	제목	출판/발행
임동식	2015	『1964 보릿고개로부터!...』	스페이스몸미술관

정기간행물

저자	발행연월	제목	출판/발행
임동식	1991 년 7 월호	「[바깥소리 3] 자연, 환경, 인간, 그리고 예술」	미술세계

5. 기관에서 소장 중인 작품 정보

작품명	연도	재료/기법	작품규격	소장처
〈불제자 소년〉	1961	종이에 수채	31.7x41.5cm(x13 개)	대전시립미술관
〈6 촌 아우 동현이〉	1973	종이에 수채	35x25cm	대전시립미술관
〈동방군자사유상〉	1979	종이에 수채	25x17.5cm	대전시립미술관
〈동방동자사유-인생, 자아상〉	1979	종이에 수채	25x17.3cm	대전시립미술관
〈동방소년 자기애도〉	1979	종이에 수채	25x17.7cm	대전시립미술관
〈여름날의 불제자〉	1980	종이에 오일펜	19.7x26.4cm	대전시립미술관
〈전원 속의 아이들〉	1980	종이에 수채	12.4x17.3cm	대전시립미술관
〈풀잎관을 쓴 아이〉	1980	종이에 수채	12.3x17.4cm	대전시립미술관
〈기억의 강〉	1991-2008	캔버스에 유채	132x320cm	대전시립미술관
〈자연물 자화상-소년상〉	1992	종이에 밀가루, 먹, 펜	24.3x16.8cm	대전시립미술관
〈나뭇잎과 아이〉	1999	종이에 수채	23.9x17cm	대전시립미술관
〈본춘이와 화가 아저씨-봄, 여름, 가을, 겨울〉	2002	캔버스에 유채	131x162cm(x4 개)	대전시립미술관
〈1981 년 여름의 기억〉	2005	캔버스에 유채	182x227cm	서울시립미술관

작품명	연도	재료/기법	작품규격	소장처
〈거북이〉	2005	캔버스에 유채	182x227cm	서울시립미술관
〈선사시대 다가가기〉	2005	캔버스에 유채	181x228cm	국립현대미술관
〈자연예술가와 화가-가을〉	2005	캔버스에 유채	130.5x162cm	경남도립미술관
〈자연예술가와 화가-겨울〉	2005	캔버스에 유채	130.3x162.2cm	대전시립미술관
〈자연예술가와 화가-봄〉	2005	캔버스에 유채	130.3x162.2cm	대전시립미술관
〈자연예술가와 화가-여름〉	2005	캔버스에 유채	130.3x162.2cm	대전시립미술관
〈토끼〉	2005	캔버스에 유채	182x227cm	서울시립미술관
〈풀잎과 마주한 생각〉	2005	캔버스에 유채	182x227cm	서울시립미술관
〈친구가 권유한 풍경-이른 봄〉	2005-2007	캔버스에 유채	51x66cm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비단장사 왕서방-상속에 대한 숙고〉	2008-2011	캔버스에 유채	181.8x227.3cm	부산시립미술관
〈비단장사 왕서방-소매장〉	2008-2011	캔버스에 유채	181.8x227.3cm	부산시립미술관
〈비단장사 왕서방〉	2009	캔버스에 유채	130x162cm	대구미술관
〈본춘이와 화가 아저씨〉	2010	캔버스에 유채	194x224cm	대구미술관
〈친구가 권유한 방흥리 할아버지 고목나무 여덟 방향〉	2010	캔버스에 유화 물감	80x100cm(x8 개)	국립현대미술관
〈오름길〉	2011-2012	캔버스에 유채	74x104.5cm(x5 개)	국립현대미술관
〈비단장사 왕서방-도시의 밤에 불빛되어 퍼지다-1〉	2015-2016	캔버스에 유채	72.8x90.8cm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비 나리는 풀밭〉	2016	캔버스에 유채	91x116.8cm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올라가〉	2019-2020	캔버스에 유채	104.5x149cm	서울시립미술관
〈일어나〉	2019-2020	캔버스에 유채	104.5x149cm	서울시립미술관
〈화석캐기〉	2019-2020	캔버스에 유채	232x111cm(x3 개)	서울시립미술관
〈향나무 저편 강원도 산토끼〉	2021	캔버스에 유채	182x227cm	대전시립미술관

그 외 아산사회복지재단, DTC 아트센터, 이화익갤러리, 갤러리 닷, 갤러리 세솜, 아르코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하나은행, SAMUSO(아트선재센터), 스페이스몸미술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가나아트센터, 설악산책 등에 작품 소장

6. 해당 가이드와 관련하여 추천하는 연구 동향, 참고자료

학술지/학위논문

저자	연도	제목	출판/발행
유현주	2023	「세계 환경 이슈와 한국생태미술담론의 형성: ANT 의 '매개' 개념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손영옥	2022	「임동식 예술론: 포스트휴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사이」	미술이론과 현장 제 33 호
김장언	2021	「임동식의 세계: 인간-자연-시간」	현대미술사학회
김한들	2021	「임동식이 지속하는 찰나: 퍼포먼스와 타블로 비방」	미술이론과 현장 제 32 호
이성원	2000	「야투-자연미술 연구(1981 년부터 1998 년까지의 '사계절 연구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전혜숙	2018	「'바깥미술회'와 '야투' 그룹의 자연미술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특성」	미술사학보
허태영	2018	「'바깥미술회'의 성격 연구: 자연미술가의 태동」	미술사연구
백은하	2016	「자연미술활동을 통한 창의성 신장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진선희	2016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野投)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정기간행물

저자	발행월	제목	출판/발행
김윤섭	2021	「자연의 기록, 휴식 같은 위로를 담다」	매거진한경
홍명섭	2020	「본춘이와 화가 아저씨-봄」	It's daejeon
장승연	2020	「아주 작은 몸짓과 붓질 – 임동식×장승연」	아트인컬쳐
정아란	2019.05.18	「"친구가 더 높은 자연예술가"...임동식.우평남의 특별한 우정」	연합뉴스
한혜수	2019.07	「색맹의 섬-인터뷰: 임동식 우평남 작가」	미술세계
전원길	2017.05.03	「자연의 미술-야투(野投)」	경기일보
박의림, 신민아, 이가연, 최민지	2017	「자연예술가의 발자취를 쫓다-임동식 화백」	공주문화
미상	2016.03.30	「임동식 작가 "회화는 손맛이 느껴지는 미흡함이 매력" 」	부자동네타임즈
박원식	2015.08.01	「산토끼 죽어 보름을 운 남자」	사람과 산
이선주	2015.05	「설치와 퍼포먼스로 자연과 교감하는 화가 임동식: 봄이 시작되고 무르익는 순간」	topclass
이윤희	2014	「뫼비우스의 띠 같은 화가」	월간미술
김광섭	2013.04.16	「순순한 영혼을 지닌 예술가 임동식」	특급뉴스
김종길	2013	「윤석남, 임동식전: 거울신화, 우물신화」	아트인컬쳐
박일규	2013	「임동식 개인전《사유의 경치 2》리뷰」	매거진아트
김종길	2011	「비단문화, 미학적 운형과 생의(生意)」	서울아트코리아
임용환	2011	「임동식」	미술문화 Life
미상	2011	「임동식 화백의 〈비단장사 왕서방전〉」	공주문화

저자	발행월	제목	출판/발행
이선화	2009	「사계절의 풍경이 가득 담겨 있는 곳」	아트인컬쳐
김백균	2008	「일상을 소재로 일탈을 꿈꾸다」	아트인컬쳐
박일규	2005	「사유의 경치, 임동식 개인전」	매거진아트
미술세계 편집부	1991	「국제자연미술전 열려-공주 금강에서 야투 주최로」	미술세계
이선영	1991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	미술세계
이선영	1991	「자연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향하여」	미술세계
미상	1991	「청년작가 그룹순례/전화그룹(청주)/나랏바람(강릉)/ 야투(공주)」	미술세계

전시 도록

저자	연도	제목	출판/발행
서울시립미술관	2020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2018	『보태니카』	부산시립미술관
dtc 갤러리	2018	『임동식-80 년대 함부르크 시절 드로잉부터 2018 오늘까지』	dtc 갤러리
대전시립미술관	2016	『임동식_동방소년 탐문기』	대전시립미술관
갤러리 세솜	2014	『임동식-자연예술가와 화가』	갤러리 세솜
갤러리 화이트블럭	2013	『기억의 시간, 시간의 기억』	갤러리 화이트블럭
이화익갤러리	2013	『사유의 경치II』	이화익갤러리
이화익갤러리	2011	『비단장사 왕서방』	이화익갤러리
대전시립미술관	2009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대전시립미술관
이화익갤러리	2008	『사유의 경치』	이화익갤러리
아르코미술관	2006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드로잉 에너지』	아르코미술관
롯데화랑	2006	『임동식 風景보기·景觀읽기 1』	롯데화랑
아르코미술관	2005	『임동식: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아르코미술관
이공갤러리	2002	『임동식-드로잉(80 년대 작품)』	이공갤러리
Hite Collection	2002	『풍경』	Hite Collection

세미나/심포지엄

저자	연도	제목	출판/발행
임지연, 김찬동, 유현주, 김종길, 박윤조	2022	《대지의 시간》 전시 연계 학술 심포지엄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전망〉	국립현대미술관
윤진섭, 김이순, 조수진, 김주원	2022	〈야투 자연미술 40 년사 편찬 학술세미나〉	한국자연미술가 협회-YATOO
공주문화재단	2022	〈화가 임동식 예술생애사〉	공주문화재단
임동식, 이성원, 김종길	2016	〈자연미술 미학의 생태적 영성〉	2 相공간 두들
임동식, 이성원, 김종길	2014	〈[예술로 가로지르기] 3 인 대담, 들에 던져진 몸〉	경기문화재단
미상	1991	〈국제 자연미술 감상회〉세미나	야투(YATOO)

단행본

저자	연도	제목	출판/발행
홍명섭	2017	『현대철학의 예술적 사용: 예술을 일깨우는 철학, 철학을 일깨우는 예술』	아트북스
보리스 그로이스 외	2014	『큐레토리얼/담론/실천』	현실문화연구
나태주	2010	『공주를 사랑한 문화예술인들』	공주문화원
이성원	2010	『자연미술이 뭐지? 』	구름서재
조상영	2009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기프트
김경서	2006	『감추기, 드러내기, 있게 하기』	다빈치기프트
홍명섭	1991	『전환기의 현대미술, 홍명섭 미술평론집』	솔

웹 참고자료

제목	게시일	URL	출판/발행, 계정명
「(작가와 함께) #임동식 자연예술가 공주」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9_zEozZbdn8	DJ Muse
「2025 동시대미술 기후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 전시 스케치」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9K7Cd0OcdRw	경기문화재단
「2024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 전시 아카이브 영상(#임동식 포함)」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wO1xN6k2wUE	공주문화관광재단
「[인물탐방] 공주고 37 회 임동식 화백 개인전 현장 인터뷰」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lW_VNgWl8tQ	공주고 총동창회 TV
「'자연과 교감' 임동식...'내면과 소통'」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mOAGczQbPf0	YTN
「(작가와 함께) 자연예술가 임동식 – 공주 화실 인터뷰」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_76WJHNP768	DJ Muse
「Ep. 4 어쩌다보니 숨은그림찾기 (feat.임동식 아카이브)」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xmZZ_V_zbVU&t=68s	57STUDIO
「자연 속으로 들어가 그림이 되다...화가 임동식의 '자연미술'」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Mj12elhrOU4	KBS News
「(김달진이 가다)제주비엔날레–임동식 자연미술 관련 현장 영상」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wMlmhgVPojM	DJ Muse
「《누구의 이야기》작가 인터뷰-임동식」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m6aUk3DaTic	부산현대미술관
「[2021 공주 이시대의 작가전] 사유의 경치 III, 임동식 작가 인터뷰」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tHAKynatq7I	공주문화관광재단
「(김달진이 가다) 임동식 –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전 소개」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1yBbOW_ALxg	DJ Muse
「《대지의 시간》 전시 연계 학술 심포지엄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전망" 발표」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oAFotyxSrK0	국립현대미술관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전시」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M4nqFElG6HM	마음연구소

제목	게시일	URL	출판/발행, 계정명
「[전시] 임동식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2020.0819~1231 서울시립미술관) 유튜브 리뷰」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WCe4Laqvkfg	반이정
「SeMA Archive Story – Rise Up Rim Dong Sik(전시&아카이브 해설 영상)」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inK3tvYHrD4	서울시립 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Rise Up Rim Dong Sik》 I Artist Talk」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Vu1fPy8Y9WA	서울시립 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Rise Up Rim Dong Sik》I Exhibition」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cvE8BHmRviA	서울시립 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I MUSEUM NIGHT 큐레이터의 시선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5iWTVHROqiE	서울시립 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SeMA_Link #ArchiveStory #SOOKYUNG_YEE」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pg5J2kS745g	서울시립 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SeMA_Link #ArchiveStory #SOUNGWON_LEE」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irN_iTWdrv8	서울시립 미술관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될 존재. 우리는 친구입니다」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lPtI1v8hHfc	대전 MBC
「임동식과 우평남 우리는 친구입니다./해방둥이 두 남자의 우정 이야기 / 스승 같은 나의 친구/자연미술의 발상지, 충남 공주」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62tuaJWOxxQ	부산 MBC
「사유하는 자연예술가 임동식 작가 [아틀리에 STORY 시즌 2]」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7xBYBlfsWnM	ENA
「야투-자연미술/이성원」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jDcgw8ohjb4&t=11s	rayun choe
「자연미술 미학의 생태적 영성_자연미술 김종길 예술비평가」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a1numsAhaO4&t=188s	rayun choe

기타(주요 언론 보도, 인터뷰)

저자	게시일	제목	URL	출판/발행, 계정명
김한정	2025.08.31	「[Frieze Seoul 2025] 가나아트,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	https://www.artkoreatv.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86	ArtKorea TV
문미옥	2024.06.25	「대전시립미술관《임동식:사계절의 선에서》개최」	https://koreanews24.co.kr/bbs/board.php?bo_table=news_soc_cul&wr_id=8964	코리아뉴스24
박상준	2024.06.25	「임동식 기획전 '사계절의 선에서' 바라 본 자연의 시간」	https://www.kpinews.kr/news/print/1065570833910358	KPI 뉴스

저자	게시일	제목	URL	출판/발행, 계정명
이윤희	2024.02.14	「"예술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있다"...독일 유학파 임동식 화가가 숲속에서 작업하는 이유는?」	https://www.arte.co.kr/art/theme/4165	arte 칼럼
전혜원	2023.09.26	「임동식의 '온몸에 풀꽃고 걷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26010015592	아시아 투데이
이선아	2023.09.18	「돌연 '귀농' 택한 유학파 작가가 30 년 매달려 그린 '이끼와 남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753771	한국경제
노형석	2023.09.15	「자연 속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을 담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1108680.html	한겨레
김금영	2023.09.07	「[문화현장] 이끼를 들어 올린 임동식 작가의 몸짓, 30 년 걸쳐 그림이 된 사연」	https://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53666	CNB 뉴스
이은주	2023.09.06	「꽃과 풀에 경의를...50 년 간 자연 탐구한 미술가 임동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0257	중앙일보
김민	2023.09.01	「온몸에 풀잎 동여매고, 자연과 하나 된 '그림' 만들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901/120965047/1	동아일보
이한나	2023.08.29	「요동치고 변화하는 나를 담으려니 30 년 걸렸네... 가나아트 임동식 개인전」	https://www.mk.co.kr/news/culture/10817903	매일경제
최형순	2022.05.26	「세종시문화재단, 다음달 출향작가 임동식의 특별전」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432	충청뉴스
이충건	2022.05.26	「우리 시대의 거장 임동식의 자연을 만나다」	https://www.thema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	THE MAC (문화저널 맥)
박소영	2021.11.11	「풍경화 속 작가의 서사」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41	충청리뷰
손영옥	2021.06.10	「해방둥이 친구가 권한 고목나무를 어떻게 그렸을까 [창작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35911&code=61171111&cp=nv	국민일보
허남윤	2021.05.02	「박수근 화백의 휴머니즘, 그대로 재현하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1050200000000133	강원일보
김지윤	2020.10.19	「"[올댓아트 전시] 떠내려오는 폐목을 세우며 '일어나'라고 외친 그 남자의 정체는?"」	https://www.khan.co.kr/article/202010191408001	경향신문

저자	게시일	제목	URL	출판/발행, 계정명
김지연	2020.10.17	「원골에 심은 꽃을 그리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0170300025	경향신문
오석기	2020.09.14	「[오석기가 만난 사람]"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인간의 정신세계가 맞닿는 순간이 작품"」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0091300000000000	강원일보
김예진	2020.09.03	「몸짓으로 붓질로... 자연과의 교감 '예술인생'」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03521481?OutUrl=naver	세계일보
황경근	2020.08.28	「양구군, 제 5 회 박수근미술상에 서양화가 임동식」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41487	매일일보
김민	2020.08.28	「한국의 자연속에 녹아든 따뜻한 휴머니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8/102684259/1	동아일보
전혜원	2020.08.26	「"우리 시대 새로운 거장의 재발견" 임동식 개인전」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826010013839	아시아 투데이
이순녀	2020.08.26	「자연과의 교감, 몸짓에서 붓질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7025001&wlog_tag3=naver	서울신문
김금영	2019.06.04	「[환경과 미술 ①] 자연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 공존에 대한 근본적 고찰」	https://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8235	CNB
서지영	2018.07.30	「내 어릴적 소년이 붓끝에 산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072	대전일보
이경택	2018.07.16	「자연 향한 몸부림, 그림으로 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1601032527097001	문화일보
강은선	2017.12.06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960	대전일보
최재수	2017.05.22	「갤러리 DOT 개관 기념전」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7052200215566927	매일신문
임연희	2016.04.16	「충청자연미술 선구자 임동식의 예술론」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35	디트 NEWS 24

저자	게시일	제목	URL	출판/발행, 계정명
김예지	2016.04.14	「자연의, 자연에 의한, 자연을 위한 화폭」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678	대전일보
한성일	2016.04.12	「[현장에서 만난 사람]임동식 작가」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60412000004048	중도일보
홍서윤	2016.04.10	「익숙한 풍경 새로운 해석」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833	충청투데이
원세연	2015.08.05	「두 거장 조평휘-임동식 근현대 미술전 나들이」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940	대전일보
원세연	2015.03.13	「[한밭춘추] 농사가 곧 예술」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407	대전일보
이문재	2014.03.11	「수만 번의 터치로 캔버스를 가득 채우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03573	경남신문
김인구	2013.11.23	「친구의 권유로 그린 공주 원골의 순수 풍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0300867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박현주	2013.11.10	「'친구가 권유한 풍경~' 그리는 '팔랑귀 화가' 임동식」	https://www.ajunews.com/view/20131110171635327	아주경제
이향휘	2013.11.07	「"'자연예술가' 임동식 '사유의 경치II' 展"」	https://www.mk.co.kr/news/culture/5782481	매일경제
류설아	2013.07.22	「'기억의 시간, 시간의 기억'展」	http://www.kyeonggi.com/693379	경기일보
김종길	2013.01.28	「[그림 읽어주는 남자]임동식의 '친구가 권유한 눈꽃구경'」	http://www.kyeonggi.com/644585	경기일보
조상인	2011.05.19	「벌거벗은 왕서방... 쇠퇴하는 동양문화의 아쉬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2153937?sid=103	서울경제
정상영	2011.05.18	「'비단장사 왕서방'연 화가 임동식」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78682.html	한겨레
조태성	2011.05.14	「'비단장사 왕서방' 개인전 여는 임동식」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14017007	서울신문

저자	게시일	제목	URL	출판/발행, 계정명
임영주	2010.10.20	「"농사 짓는 내 친구가 자연예술가, 난 그저 화가일 뿐"」	https://www.khan.co.kr/article/201010202149575	경향신문
신세미	2010.10.06	「"나이 든 작가에 전시공간 열어줘 과감하게 도전"」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0601033530026002	문화일보
고미석	2010.09.21	「[미술&소통]자연의 죽비소리, 나를 깨우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921/31329752/1	동아일보
김선정	2009.05.12	「[한경에세이] 불광동의 한 작업실」	https://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1242561	한국경제
문소영	2009.04.06	「대가의 달항아리에 바치는 오마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06027009	서울신문
노정용	2008.05.26	「화폭에 담은 다큐멘터리..임동식 '사유의 경치전'」	https://www.fnnews.com/news/200805261647297742?t=y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2006.04.12	「'친구가 권유한 풍경을 그림으로'」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60412000135	부산일보
지명훈	2003.08.10	「논두렁에 미술작품이 '주렁주렁'...공주시 원골마을 미술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00653?sid=102	동아일보

기타(자료집)

저자	연도	제목	출판/발행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한국미술 전시자료집III 1980-1989』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과 마을 운영위원회	2001	『예술과 마을』	예술과 마을 운영위원회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1998	『1998 국제자연미술전-마을과 예술, 예술과 마을』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7. 연보

1945	충남 연기군 남면 출생
1965	제 1 회《일수회(一樹會) 미술전》(문화원화랑, 공주)
1966	제 2 회《일수회(一樹會) 미술전》(문화원화랑, 공주)
1967	제 3 회《일수회(一樹會) 미술전》(문화원화랑, 공주) 첫 개인전《유화전》(공주문화원, 공주) 경복궁미술관 신상전 특성장려상 수상
1968	제 4 회《일수회(一樹會) 미술전》(문화원화랑, 공주)
1969	제 5 회《일수회(一樹會) 미술전》(문화원화랑, 공주)
1970	《진중작품전 1》(사이곤 주월사 전시관, 베트남) 《진중작품전 2》(서울국립공보관, 서울)
1974	《한국미술청년작가회》(1974–197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탑미술관, 부산; 전일미술관, 광주 등 총 12 회 《한국현대작가 초대전》(공주문화원, 공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75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제 1 회 야외작품을 위한 캠핑》(꽃지해변, 안면도) 《한국미술청년전》(공주문화원, 공주) 《백제문화재 기념 한국현대작가 초대전》(야동인 활동)(공주문화원, 공주)
1976	《백제문화재 기념 한국현대작가 초대전》(야동인 활동)(공주문화원, 공주) 《미국독립 200 주년 한인전》(발치인스티튜트미술관, 필라델피아, 미국)
1977	《청년작가회 야외작품발표회》(미사리 강변, 하남) 《청년작가회관 개관기념전》(청년작가회관, 서울) 《청년미술회화 26 인전》(청년작가회관, 서울) 《77-88》(청년작가회관, 서울) 《파스텔화 개인전》(청주문화원, 청주) 《드로잉 개인전》(청년작가회관, 서울)
1978	《입체전》(청년작가회관, 서울) 《새로운 예술(New art)》(청년작가회관, 서울) 《오늘의 18 인》(청년작가회관, 서울)
1979	《한국미술 청년작가회》(시떼 앙테르내셔널, 파리, 프랑스) 《청년작가회 74~79 년》(청년작가회관, 서울)
1980	《제 1 회 금강현대미술제》(금강백사장, 공주)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앙데팡당》(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공주고 미술인 동문 창립전》(공주문화원, 공주)
1981	《금강현대미술제 실내전》(대전문화원, 대전) 《오오(五梧) 현대미술동인전》(공주문화원, 공주) 《야투-야외현장미술연구회》(1981–1984),《야투-사계절연구회》(1985–1998), 각 지역 야외 자연공간, 국내와 독일, 매년 실시, 총 74 회
1982	《오오(五梧) 현대미술동인전》(대전문화원, 대전) 《연례전(Jahresaustellung)》(1982–1987)(함부르크 미술대학 강당, 독일)

1985	《Kunstpreis Altona》(알토나 시청, 함부르크, 독일) 《Biennale des Friedens B5》(쿤스트하우스, 함부르크, 독일) 독일 함부르크 알토나미술상 수상
1987	《Natur auf die Zeit Neuwerk》(함부르크 미술대학 강당, 함부르크, 독일) 《자연과 예술 심포지움 Neuwerk 87》(자연보호섬 노이에베르크, 독일) 《함부르크대음향제'87》(메세할레 함부르크, 독일) 《Kunstproben》(BATIG 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1988	《야투 세 곳의 섬으로부터...》(문화원화랑, 대전) 《야투 실내에서의 자연미술전》(동아미술관, 대전) 독일 국립 함부르크미술대학 자유미술학과 졸업
1989	《좋은 그림에로의 음향》(쿤스트하우스, 함부르크, 독일) 《야투(野投)Yatoo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함부르크 미술대학 강당, 독일)
1990	《자유로운 수단》(자연미술의집, 공주)
1991	《구드래야외미술제》(구드래공원 및 백마강, 부여)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금강, 공주)
1992	《여기 저기에》(슈베르크산, 임머스베크, 독일) 《리풀렉시온》(도로스타이하우스, 핀네베르크, 독일) 《비무장지대 예술문화 운동작업》(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인간생활의 기록전》(부산문화회관, 부산) 《바다미술제》(광안리해변, 부산) 《종이를 통한 자연전》(공주문예회관, 공주)
1993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Identitaet》(드레스덴/함부르크, 펜타콘-게바우데, 독일) 《비무장지대 예술문화 운동작업》(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남비엔날레》(용지공원, 창원)
1994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Identitaet》(에른스트미술관, 부다페스트, 헝가리; 무희나 쿤스트호흐슐레,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1995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금강, 공주)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1996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1997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부여 구드래 야외 조각공원 〈흰색의 터〉 영구설치, 구드래공원, 부여
1998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금강, 공주)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KBS 미술초대전》(KBS 전시실, 대전)
1999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공장예술제》(이천, 경기도)
2000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미디어시티 서울 2000《도시: 0 과 1 사이》 지하철 프로젝트(지하철 충정로역, 서울) 《흙 놀이》(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사각상자보기》(이공갤러리, 대전)

2001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목원대 교수작품전》(목원대, 대전) 《용지야외미술제》(용지공원, 창원) 《Re-Landscape》(롯데화랑, 대전)
2002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목원대 교수작품전》(목원대, 대전) 《한일교류 임팩트》(성산아트홀, 창원) 《미디어 무디아-한국의 미디어아트와 샤머니즘》(연세대백주년기념관, 서울) 개인전《80 년대 함부르크시절 드로잉》(이공갤러리, 대전)
2003	《예술과 마을-원골프로젝트》(신풍 원골마을, 공주) 《목원대 교수작품전》(목원대, 대전) 《자연의 시간 인간의 시간》(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뉴프론티어》(예술회관, 대구)
2004	《목원대 교수작품전》(목원대, 대전) 《2003 신소장품전》(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5	《목원대 교수작품전》(목원대, 대전) 개인전《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아르코미술관, 서울)
2006	개인전《친구가 권유한 풍경》(롯데화랑, 부산/대전) 《심경, 마음으로 읽는 풍경》(이안갤러리, 대전) 《드로잉 에너지》(아르코미술관, 서울)
2007	《이상한 나침반》(갤러리눈, 서울)
2008	개인전《사유의 경치》(이화익갤러리, 서울) 《태초의 현장, 제 10 차 람사르총회 기념 특별전》(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09	《2008 신소장품전》(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이종수 임동식 2 인전 A Homage to Lee, Jong Soo》(이화익갤러리, 서울) 《Small is beautiful》(이화익갤러리, 서울) 《대학로 100 번지》(아르코미술관, 서울) 《플랫폼 인 기무사》(구 국군 기무사령부 터, 서울)
2010	개인전《자연예술가와 화가》(스페이스 공명, 서울)
2011	《어린이를 위한 소장품 기획전: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 본 미술》(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개인전《임동식 비단장사왕서방》(이화익갤러리, 서울) 《산수정경(山水情景)》(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2012	《여기 사람이 있다》(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풍경》(하이트컬렉션, 서울) 《라운드테이블》(광주비엔날레, 광주)
2013	《세 개의 풍경전》(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기억의 시간, 시간의 기억》(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헤이리) 《역사 속에 살다-초상, 시대의 거울》(전북도립미술관, 전주) 개인전《사유의 경치 II》(이화익갤러리, 서울) 《경계의 회화 in between》(금호미술관, 서울)
2014	개인전《임동식-자연예술가와 화가》(갤러리 세솜, 창원) 《컬렉션 16 년》(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5	《심안(心眼)으로 본 타자》(갤러리 룩스, 서울) 《1964 보릿고개로부터!...》(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광복 70 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세기의 동행》(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아시아현대미술전 2015》(전북도립미술관, 전주) 《열린미술관:대전미술의 모더니즘》(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전) 《현대미술리포트: 백제의 재발견》(전북도립미술관, 전주)
2016	《프레임》(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아틀리에스토리》(한가람미술관, 서울) 개인전《동방소년탐문기》(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대전다큐멘타 2016:공동체감각》(dtc 갤러리, 대전)
2017	《유사성: 여성과 자연》(아부다비 국립극장,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16 신소장품전: 수렴과 발산》(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신 소장품전《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둥까지》(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전, 그리다 꿈꾸다》(아트센터 쿠, 대전) 《공주(公州) 공주사람들》(이미정갤러리, 공주) 《김홍주 임동식 최병소 홍명섭전》(갤러리 닷, 대구) 《Korean Art Now》(이화익갤러리, 서울) 개인전《임동식 에디션》(갤러리 닷, 대구)
2018	《대전시립미술관 20 주년 기념 : 대전미술아카이브 2018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개인전《고개숙인 꽃에 대한 인사 에디션시리즈》(이미정갤러리, 공주) 개인전《임동식-80 년대 함부르크 시절 드로잉부터 2018 오늘까지》(dtc 갤러리, 대전) 《보테니카 Botanika》(부산시립미술관, 부산) 《Korean Art Now 2018》(이화익갤러리, 서울)
2019	《2018 신소장품전: 형형색색》(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8 SeMA 신소장품 멀티-액세스 4913》(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색맹의 섬》(아트선재센터, 서울)
2020	《비상:飛上》(이화익갤러리, 서울) 《소장품 100 선》(대구미술관, 대구) 《광자진취 : 대전미술 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다시온 봄》(이미정갤러리, 공주) 개인전《일어나 올라가 임동식》(서울시립미술관) 제 5 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
2021	《임동식-사유의 경치III》(아트센터고마, 공주) 제 5 회 박수근미술상수상작가전《임동식》(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양구; DDP 갤러리문, 서울) 《임동식 : 풍경의 단위》(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대지의 시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신소장품 2020》(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22	《생의 찬미》(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과천) 《임동식: 동방소년 귀환기-방축리 풍경전》(박연문화관, 세종시) 《누구의 이야기》(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3	《아카이브 하이라이트: 김용익, 김차섭, 임동식》(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 《이끼를 들어 올리는 사람, 임동식》(가나아트센터, 서울) 《제 3 회 제주비엔날레: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제주도립미술관, 제주) 개인전《임동식 풀잎 너머를 보다》(뮤지엄호두, 천안)
2024	《눕지 않는 풀》(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회화적 지도 읽기》(대구미술관, 대구)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 畵中有詩)》(DTC 아트센터 d2, 대전) 개인전《소장품 기획전-임동식 : 사계절의 선에서》(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제 13 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프리비엔날레)》(SeMA 벙커, 서울) 《시간의 중첩, 감각적 변주》(예술공간 이아, 제주)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언두 플래닛》(아트선재센터, 서울)
2025	《DM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5: 흔적》(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경기도미술관, 경기) 《지역예술 우편함_공주통신, 자연으로부터 : 버섯 따러 가던 날, 멧돼지 가족을 만났다》(아트센터 고마, 공주) 《Art&Recipe 2025》(교동미술관, 전주)

8. 컬렉션 정보

컬렉션 분류·기술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임동식 컬렉션
S1 1970 년대 작업 관련 자료
F1 초기작업 관련자료
F2 〈어느 소년의 꿈을 위한 작업〉
F3 〈O 線을 찾아서〉
F4 〈견분〉
S2 금강현대미술제
F1《금강현대미술제 창립 야외전》(1980)
F2《금강현대미술제 입체 평면전》(1981)
S3 야투자연미술연구회
F1《야투자연미술연구회 창립야외전》(1981)
F2《세곳의 섬으로부터 전》(1988)
F3《야투-NATUR KUNSTLERGRUPPE AUS KOREA(야투 독일전)》(1989)
F4《자유로운 수단》(1990)
F5《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1991~1995)
F6 야투 야외현장미술 기록(1981-1998)
S4 독일 유학 시절 및 귀국 후 작업
F1《평화의 비엔날레(Internationale Biennale des Friedens)》(1985)
F2《미술과 자연 노이베르크 심포지엄(Kunst-Natur Symposium am Neuwerk)》(1987)
F3《노이베르크섬의 시간에 관한 자연(Nature auf die Zeit Neuwerk)》(1987)
F4《함부르크 대음향제(Musica Hamburg)》(1987)
F5《연례전(Jahresausstellung)》(1987)
F6《H 시에서 사념의 잎파리》(1987)
F7《예술시도전(Kunstproben)》(1987)
F8《임동식전(함부르크시 장학연구 귀국개인전)》(1988)
F9《함부르크 미술대 학위취득 개인전》(1989)
F10《좋은 그림에로의 음향전(Der Gute Ton zum schönen Bild)》(1989)
F11《IDENTITÄT》(1993)
F12 유학 시절 작품 및 자료
S5 예술과 마을
F1 1998 년《예술과 마을》
F2 2000 년《예술과 마을》
F3 2001 년《예술과 마을》
F4 원골마을 시절 작품 및 자료 사진(1993-2003)
S6 2000 년 이후 (회화)작업 관련 자료
F1《미디어 시티 서울 2000》(2000)
F2《임동식-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2005)

			F3《임동식-자연 예술가와 화가》(2010)
			F4 기타 전시 관련 자료
	S7 개인 자료		
			F1 서신 자료
			F2 사진 자료
			F3 텍스트 자료
			F4 수집 자료
			F5 교육 자료

컬렉션	임동식 컬렉션
참조코드	C8
계층구분	컬렉션(C)
생산자	임동식
생산시기	1970-2018
수집처	임동식
자료형태별 수량	총 수량 1300 건, 도서간행물 59 건, 문서 333 건, 박물 78 건, 사진 775 건, 음성영상 16 건, 홍보인쇄물 39 건
범위와 내용	〈임동식 컬렉션〉은 작가 임동식에 의해 2018 년 11 월 30 일, 12 월 10 일, 12 월 28 일, 2019 년 1 월 8 일 총 4 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다. 컬렉션은 총 7 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0 년대 작업 관련 자료', '금강현대미술제', '야투자연미술연구회', '독일 유학 시절 및 귀국 후 작업', '예술과 마을', '2000 년 이후 (회화)작업 관련 자료', '개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체계	임동식 컬렉션은 모두 비전자 자료로 아카이브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정리되어 있으며, 3-C-0125, 3-C-0137,3-C-0140,3-C-0143, 3-P-0007 부터 3-P-0012, 3-P-0078, 3-R-0043 부터 3-R-0053, 4-M-0032, 4-M-0033, 4-M-0050 까지 총 24 개 보존상자에 보존되어 있다.
이용제한	
열람조건	
하위계층	C8/S1 1970 년대 작업 관련 자료
	C8/S2 금강현대미술제
	C8/S3 야투자연미술연구회
	C8/S4 독일 유학 시절 및 귀국 후 작업
	C8/S5 예술과 마을
	C8/S6 2000 년 이후 (회화)작업 관련 자료
	C8/S7 개인 자료

시리즈	1970 년대 작업 관련 자료
참조코드	C8/S1
계층구분	시리즈(S)
생산자	임동식
생산시기	1970-1979
수집처	임동식
자료형태별 수량	총 수량 37 건, 도서간행물 4 건, 문서 4 건, 박물 5 건, 사진 24 건
범위와 내용	본 시리즈는 1970 년부터 1979 년까지 임동식의 예술 창작 활동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이다. 임동식은 1973 년에 베트남 전쟁 파병에서 돌아와 작업 활동을 재개한다. 1974 년 1 월 20 일 한국미술청년작가회의 창립에 참여하고, 같은 해의《한국미술청년작가회 창립전》(1974. 9. 22. – 28., 서울미술회관),《야외작품 발표회》(1975 년 8 월 충남 안면도, 1977 년 6 월 경기도 미사리)를 포함하여 1979 년에 열린 제 12 회《한국미술 청년작가회전》(1979. 8. 1.-8. 7., 제주 KAL 호텔)까지 참여한다. 이 시기에 그는〈견분〉시리즈로 대표되는 평면 작업을 통해 모더니즘 회화 안에서 인식의 문제를 실험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어느 소년의 꿈을 위한 작업〉등 야외작품을 발표한다. 후자의 작업은 이후에 임동식이 지속하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야외미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임동식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주류 화단과 미술대학의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태에 회의를 느끼고 이후 고향 공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정리체계	본 시리즈는 '초기작업 관련자료', '어느 소년의 꿈을 위한 작업', 'O 線을 찾아서', '견분' 총 4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계층	C8/S1/F1 초기작업 관련자료
	C8/S1/F2〈어느 소년의 꿈을 위한 작업〉
	C8/S1/F3〈O 線을 찾아서〉
	C8/S1/F4〈견분〉

시리즈	금강현대미술제
참조코드	C8/S2
계층구분	시리즈(S)
생산자	임동식
생산시기	1980-1988
수집처	임동식
자료형태별 수량	총 수량 9 건, 문서 4 건, 사진 5 건
범위와 내용	본 시리즈는 1980 년대 임동식이 기획, 진행한 금강현대미술제 관련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동식은 1970 년대 말에 고향 공주로 돌아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1980 년 1 월에 공주 금강 백사장에서 국내 최초의 야외미술제라고 할 수 있는 금강현대미술제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금강현대미술제는 제 1 회 《금강현대미술제 창립 야외전》(1980.11.16-22. 공주 금강 백사장)과 제 2 회 《금강현대미술제 입체 평면전》(1981.4.18.-30. 대전 문화원)의 두 차례의 전시를 진행했다. 1 회 전시는 임동식, 홍명섭, 유근영이 주축이 되어 기획하여 금강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28 명이 참가했다. 2 회 전시는 홍명섭이 기획했으며, 한남대와 목원대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19751224' 그룹과 '78 세대' 그룹이 함께 참여했다. 임동식의 이 시기 작업은 방법적, 형식적 측면에서 이후의 자연미술과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자연미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며, 그보다 미술관 밖의 '야외미술'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외에서 〈견분〉 시리즈를 지속함으로써 여전히 모더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이 주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리체계	본 시리즈는 '금강현대미술제 창립 야외전(1980)'과 '금강현대미술제 입체 평면전(1981)' 2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계층	C8/S2/F1《금강현대미술제 창립 야외전》(1980)
	C8/S2/F2《금강현대미술제 입체 평면전》(1981)

시리즈	야투자연미술연구회
참조코드	C8/S3
계층구분	시리즈(S)
생산자	임동식
생산시기	1980-2015
수집처	임동식
자료형태별 수량	총 수량 350 건, 문서 71 건, 박물 12 건, 사진 252 건, 음성영상 9 건, 홍보인쇄물 6 건
범위와 내용	본 시리즈는 임동식이 진행한 야투 야외현장미술연구회의 관련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동식은 1981 년에 야투 야외현장미술연구회를 창립하고, 공주 금강에서 《야투자연미술연구회 창립야외전》(1981. 8. 14.-19.)을 진행한다. 야투는 서울을 벗어난 공주를 중심으로 기성 미술과는 다른 미술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이전에 임동식이 앞서 주창한 '야동인(野同人)'의 성격과도 공명하는 면이 있다. 또한 공주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야외 현장성을 강조한 미술을 추구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금강현대미술제의 특징도 어느 정도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야투는 사계절연구회를 중심으로 계절에 맞춰 연 4 회의 작품 발표회를 가졌고, 매번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는 간행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야투 창립 이후 임동식이 독일에 거주하면서 적극적으로 야투를 해외에 소개하였고, 함부르크에서 《야투-NATUR KUNSTLERGRUPPE AUS KOREA(야투 독일전)》(1989. 10. 18. - 27., 함부르크 미술대학)을 개최하는 등 해외 미술 현장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러한 교류를 토대로 1991 년에는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의 해외작가 35 명이 참여한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1991. 7. 14. - 8. 11., 공주)을 개최하였다.
정리체계	본 시리즈는 5 개의 야투 관련 전시(야투자연미술연구회 창립야외전, 세곳의 섬으로부터 전, 야투 독일전, 자유로운 수단,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와 야투 야외현장미술 기록의 총 6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계층	C8/S3/F1 《야투자연미술연구회 창립야외전》(1981)
	C8/S3/F2 《세곳의 섬으로부터 전》(1988)
	C8/S3/F3 《야투-NATUR KUNSTLERGRUPPE AUS KOREA(야투 독일전)》(1989)
	C8/S3/F4 《자유로운 수단》(1990)
	C8/S3/F5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1991~1995)
	C8/S3/F6 야투 야외현장미술 기록(1981-1998)

시리즈	독일 유학 시절 및 귀국 후 작업
참조코드	C8/S4
계층구분	시리즈(S)
생산자	임동식
생산시기	1976-1993
수집처	임동식
자료형태별 수량	총 수량 250 건, 도서간행물 2 건, 문서 43 건, 박물 27 건, 사진 175 건, 홍보인쇄물 3 건
범위와 내용	본 시리즈는 임동식이 독일 유학 시기 진행한 예술 활동과 귀국 이후 진행한 작업들에 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동식은 1981 년 가을에 독일 함부르크로 유학을 떠난다. 초반에는 함부르크 대학 내에서 독일어 어학강좌를 수학하였고, 이후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Hamburg) 자유미술학과에서 수학하였다. 1988 년에 졸업하였으며, 졸업 이후에는 1989 년 12 월에 영구 귀국할 때까지 함부르크와 공주를 오가며 작업하였다. 임동식의 이 시기 작업은 자연미술에 대한 사유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동시에 작업의 매체와 방법론을 확장하는 시기로 보인다. 그는 클라우스 뵈믈러(Claus Böhmler) 교수의 세미나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식의 실험적 작품을 시도한다. 특히 자연의 소리를 다루는 사운드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데, 이는 함부르크 예술 현장의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야투 멤버와의 활발한 서신 교류를 통해 야투 활동을 지속했으며, 함부르크에서 야투를 소개하고, 《야투-NATUR KUNSTLERGRUPPE AUS KOREA(야투 독일전)》(1989. 10. 18. - 27.,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을 개최하면서 야투 활동을 해외에 널리 알렸다.
정리체계	본 시리즈는 11 개의 전시(평화의 비엔날레, 미술과 자연 노이베르크 심포지엄, 노이베르크섬의 시간에 관한 자연, 함부르크 대음향제,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연례전, H 시에서 사념의 잎파리, 예술시도전, 임동식전(함부르크시 장학연구 귀국개인전),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학위취득 개인전, 좋은 그림에로의 음향전, IDENTITÄT)와 유학 시절 작품 및 자료를 포함한 총 12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계층	C8/S4/F1《평화의 비엔날레(Internationale Biennale des Friedens)》(1985)
	C8/S4/F2《미술과 자연 노이베르크 심포지엄(Kunst-Natur Symposium am Neuwerk)》(1987)
	C8/S4/F3《노이베르크섬의 시간에 관한 자연(Nature auf die Zeit Neuwerk)》(1987)
	C8/S4/F4《함부르크 대음향제(Musica Hamburg)》(1987)
	C8/S4/F5《연례전(Jahresausstellung)》(1987)
	C8/S4/F6《H 시에서 사념의 잎파리》(1987)
	C8/S4/F7《예술시도전(Kunstproben)》(1987)
	C8/S4/F8《임동식전(함부르크시 장학연구 귀국개인전)》(1988)
	C8/S4/F9《함부르크 미술대 학위취득 개인전》(1989)
	C8/S4/F10《좋은 그림에로의 음향전(Der Gute Ton zum schönen Bild)》(1989)
	C8/S4/F11《IDENTITÄT》(1993)
	C8/S4/F12 유학 시절 작품 및 자료

시리즈	예술과 마을
참조코드	C8/S5
계층구분	시리즈(S)
생산자	임동식
생산시기	1988-2013
수집처	임동식
자료형태별 수량	총 수량 270 건, 도서간행물 2 건, 문서 28 건, 박물 4 건, 사진 225 건, 음성영상 7 건, 홍보인쇄물 4 건
범위와 내용	본 시리즈는 임동식이 기획 및 진행한《예술과 마을》에 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3 년에 공주 원골마을로 이주한 임동식은 마을 뒷산 아래에 작업장을 짓고 생활한다. 임동식은 마을 아이들의 과외 선생 역할을 하고 마을의 사소한 일손을 도우면서 주민들과 교류하였다. 부산대 미술대학 학생들이 원골마을로 야외워크숍을 온 것이 계기가 되어 주민들이 임동식의 작업 활동과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앞서서 작품에 대해 묻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일이 있었고, 임동식은 이를 바탕으로 원골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예술과 원골》을 기획하게 된다. 임동식은 1993 년의《예술과 원골》을 시작으로,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까지《예술과 마을》의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한다. 이 시기에 임동식은 마을 주민과 직접 교류하면서 삶의 태도와 작업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궤적을 보여준다. 특히 마을 주민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술 축제는 매우 선구적으로 공동체 미술 선보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리체계	본 시리즈는 3 개의 전시(1998 년《예술과 마을》, 2000 년《예술과 마을》, 2001 년《예술과 마을》)와 원골마을 시절 작품 및 자료 사진(1993-2003)을 포함하는 총 4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계층	C8/S5/F1 1998 년《예술과 마을》
	C8/S5/F2 2000 년《예술과 마을》
	C8/S5/F3 2001 년《예술과 마을》
	C8/S5/F4 원골마을 시절 작품 및 자료 사진(1993-2003)

시리즈	2000 년 이후 (회화)작업 관련 자료
참조코드	C8/S6
계층구분	시리즈(S)
생산자	임동식
생산시기	2000-2018
수집처	임동식
자료형태별 수량	총 수량 123 건, 도서간행물 49 건, 문서 20 건, 박물 20 건, 사진 9 건, 홍보인쇄물 25 건
범위와 내용	본 시리즈는 2000 년 이후 임동식의 회화 작업에 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2000 년대 들어 임동식은 회화 작업에 집중한다. 2002 년부터 친구 우평남이 추천하는 풍경을 그리는 〈친구가 권유한 풍경〉 시리즈를 다수 제작한다. 나아가 본인의 과거 야외 현장 작품을 회화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시기의 작업은 과거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진 야외 현장 작품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임동식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지점이 된다.
정리체계	본 시리즈는 3 개의 전시 (《미디어 시티 서울 2000》,《임동식-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임동식-자연 예술가와 화가》)와 기타 전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총 4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계층	C8/S6/F1 《미디어 시티 서울 2000》(2000)
	C8/S6/F2 《임동식-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2005)
	C8/S6/F3 《임동식-자연 예술가와 화가》(2010)
	C8/S6/F4 기타 전시 관련 자료

시리즈	개인 자료
참조코드	C8/S7
계층구분	시리즈(S)
생산자	임동식
생산시기	1999-2008
수집처	임동식
자료형태별 수량	총 수량 261 건, 도서간행물 2 건, 문서 163 건, 박물 10 건, 사진 85 건, 홍보인쇄물 1 건
범위와 내용	
정리체계	본 시리즈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서신 자료, 사진 자료, 텍스트 자료, 수집 자료, 교육 자료의 5 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계층	C8/S7/F1 서신 자료
	C8/S7/F2 사진 자료
	C8/S7/F3 텍스트 자료
	C8/S7/F4 수집 자료
	C8/S7/F5 교육 자료

© 2025, 서울시립미술관
이 책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으므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 전재, 변형, 송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문의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